



가족끼리 연인끼리 극장으로

설날은 극장이 최대 대목중 하나. 올 설 연휴 기간에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 가운데는 강력한 작품은 눈에 띄지 않는 대신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명절 때마다 강세를 보여온 한국영화의 경우 연휴 기간 새로운 개봉작은 없지만 100만명을 넘긴 '의형제'와 '하모니'가 눈길을 끈다. 외화로는 '퍼시픽스과 번개도둑'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등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다.

1 하모니

각기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여죄수들이 합창단을 구성, 노래를 부르며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윌드스타 김윤진을 비롯해 연기파 배우 나문희, 뮤지컬 분야에서 내공을 쌓은 박준면·정수영, '해운대'의 강예원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2세 이상 관람가>

2 울프맨

어린 시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주인공이 야수에게 물린 후 늑대인간으로 변신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스타워즈' 시리즈와 '쥬라기 공원 3'에서 특수효과를 맡은 조 존스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연기파 배우 베니치오 델 토로, 앤서니 홉킨스 등이 출연하며 주인공 로렌스가 흉측한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는 과정 등이 흥미롭다. <18세 이상 관람가>

3 퍼시픽스과 번개도둑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설정에서 시작되는 영화로 '릭 라이던'의 판타지 소설이 원작이다. 2010년 미국과 고대 올림푸스 신전을 오가며 펼쳐지는 모험담이 생생하다. 자신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고등학생 퍼시 잭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제우스의 번개'를 훔쳐간 범인으로 몰려 자 누명을 벗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우마 서먼 등 조역들의 연기도 눈길을 끈다. <12세 이상 관람가>

4 의형제

7주 동안 계속됐던 '아바타'의 아성을 넘어서 한국영화의 부활을 알린 작품이다. 12일 현재 약 13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남과 북에서 버림받은 국정원 직원과 남과 공작원이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송강호·강동원이라는 최고의 배우와 '영화는 영화다'로 총무로에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5 공자-춘추전국시대

난세 속에서 지혜로 중국을 다스린 지략가이자 덕망 높은 사상가였던 공자의 일생을 그린 영화. 주윤발이 공자역을 맡아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뛰어난 지략과 카리스마로 공자는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지만 그를 시기하는 무리로 인해 결국 노나라를 등지고 떠돌이 신세를 자청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6 발렌타인 데이

다양한 커플들이 벌이는 발렌타인 데이 소동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로 '러브 액츄얼리'류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권장만한 영화다. 앤 해서웨이, 제사가 알바, 제이미 폭스, 에슈턴 커처 등 호화 캐스팅이 눈에 띈다. '귀여운 여인', '런 어웨이 브라이드' 등 로맨틱 코미디에 일가견이 있는 케리마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7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먹고 싶은 음식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3D 애니메이션이다. 엉뚱한 실험을 일삼는 과학자 플린트는 수퍼음식 복제기를 제조한다. 먹을 것이라곤 정어리밖에 없던 마을에 치즈버거 비가 내리고, 기계에 입력만 하면 먹고 싶은 게 하늘에서 쏟아진다. '아바타'가 지퍼 놓은 3D 신드롬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전체 관람가>

아바타

관객 1천 300만명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작품으로 설 연휴 기간을 거치면 '과물'이 갖고 있는 관객 동원 1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도라 행성으로 간 인간들이 아바타를 통해 나비족과 교감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놀라운 기술력을 자랑하는 3D 화면이 경이롭다. <12세 이상 관람가>

식객-김치전쟁

허영만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광주에서 많은 부분을 촬영했다. 친어머니같은 수장이 운영하는 춘양각을 찾은 성찬은 수향의 친딸이자 세계적 웨프 장인이 귀국해 춘양각을 없애려 한다는 걸 알게된다. 춘양각을 지키기 위해 성찬은 김치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맞붙는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0

안수백년 김동천년

전남대학교병원의 시료(史料)와
따뜻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교가 100년째 교육·연구·사회봉사·문화·국제협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시료(史料)와 따뜻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접수처: 전남대학교병원 기획처 (061-270-2001)

1월 중실현공제회
1월 5일-12일
-2010년 1월 5일-

▶ 신청처: 전남대학교병원 기획처 (061-270-2001)